



하늘과 땅을 묶으며 가족 역사 사업 방법

1. 자료 수집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상들의 출생 및 사망 정보 및 가족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제적 등본 및 족보에서 얻을 수 있다.

제적 등본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및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족보는 가까운 가족이나 종친회 또는 족보 도서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 정보 입력

수집한 정보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가족 역사 사업 사이트(<https://familysearch.org>)에 접속하여 등록하고 로그인 한 후에 입력한다. 입력된 사망한 조상들의 정보는 로그인 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보완하거나 의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FamilySearch에 로그인을 한 후 '패밀리 트리'를 클릭하면 자신의 가계도가 나타난다.

수집한 자료와 필요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입력 방법 및 설명은 '훈련 보기'(<https://familysearch.org/tree-training>) 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움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 성전 의식 예약 및 가족 의식 요청서 출력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의식 정보에 '요청'이라는 표시가 나타나며, 성전 의식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가계도의 이름 상자 위에 있는

성전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명에 따라

진행을 하면,

성전 의식이

예약된다.

직접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

조상들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족

의식 요청서를

출력하여 성전에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전에 위임하려면, 성전 의식 목록의 지명받은 사람을 본인에서 성전으로 변경하면 된다.

4. 성전 의식 수행

출력한 가족 의식 요청서를 성전에 제출하면, 종류에 따라 분홍, 파랑, 노랑색의 의식 카드를 만들어 준다. 그 카드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성전 의식에 참여한다.

가족 역사 사업은 모든 회원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으로 점차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히 제일회장단은 2012년 10월 8일 공문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들이 자신의 가족 이름이나 소속 와드 회원들 조상의 이름으로 성전 사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도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와드나 지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나 스테이크 혹은 지방부의 가족 역사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상담자나 가족 역사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 성전 부속 건물에 있는 가족 역사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족 역사부 연락처:

무료 전화: 003-0813-1596

이메일: KoreanSupport@familysearch.org





50년 공백의 의미

한국은 1888년 박정양을 초대 주미공사로 파견하고, 미국은 호레이스 알렌을 주한공사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외교 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 기독교 전파와 교육사업 등에 나섰던 것도 이 즈음이었다.

어수선한 국내 정세 속에서 뜻있는 청년들이 속속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중 주요 인물로는 1902년에 도미한 안창호(1878)와 1904년 도미한 이승만(1875)과 박용만(1881)이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신문명을 통한 개화와 대한제국의 몰락 이후, 조국의 광복이라는 대의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에서조차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음 이야기는 외국인 선교사와 한인 기독교인 사이의 이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다.

“기독교에 입교(했던 한국인) 계층은 사회적으로 교회와 선교사에 기대어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려는 민중들과, 개화와 부국강병을 기대한 지식인들이었다. 민중들에게 기독교는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지배층의 가렴주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선교사에게 기대는 이른바 ‘양대인자세(洋大人藉勢)’의 현상이 나타났다. 소외받던 계층의 입교 등은 기독교가 반봉건운동의 선두에 설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인식하였고, 독립협회나 계몽활동을 통하여 입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1900년대 전반기 옥중에서 전직 관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지식인들의 기독교 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계층의 입교는 반외세운동으로 연결되어, 기독교 민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¹

앨마 오웬 테일러가 평양에서 참석하기도 하였던 ‘백만인구령운동’과 그 직전의 ‘대부흥운동’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사 기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각되는 일제와의 대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현실보다는 내세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고자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다. 민족운동이나 사회계몽을 교회 운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던 일부 평신도 지도자들이 부흥운동 이후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았다. 부흥운동 이후 기독교가 국가적·민족적 현실보다 내세 신앙으로 경도되는 것이나, 선교사 주도의 교회가 계속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 1909년 …… 남감리교의 스톱스(M. Stokes) 등은 (1907년 시작된) 대부흥운동의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1년 안에 5만 명의 새 신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이 목표는 얼마 가지 않아 2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어 북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에서는 100만 명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현실에 비추어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였다. 그럼에도 비현실적인 대규모 전도운동을 시도한 것은 일부 선교사들이 국운이 기운 한국의 정치 현실이 오히려 전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²

기독교가 민족의 아픔과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로 안창호를 들 수 있다. 그는 1890년대에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후에 평남 강서에 학교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1907년 귀국한 뒤에는 당시의 기성 교회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정치 현실의 극복을 중시하였으므로, 내세만을 강조한 선교 정책을 비판하며 선교사들과 마찰을 빚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기성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활동하지는 않았다. 안창호의 부인 이해련은 이렇게 회상한다.

“그 당시 도산 선생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호감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지상의 일을 무시하고 천당 가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하여, 도산 선생은 이 민족을 위해서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믿는 방법을 찬성하지 않고 있었다. ……”³

안창호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공로도 많지만, 한국 사회에 우민정책을 사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⁴ 또 부흥회적인 열정의 영성을 내세우며, 관념적이고 미신적인 ‘신령한’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한국 기독교에 반발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미국 체류 시에 기회만 되면, 솔트레이크를 찾아 도시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며 그가 꿈꾸는 이상촌의 모델로 삼았었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로운 사실이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주

1. 한국독립운동의역사·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_기독교_독립기념관
2. ibid
3. 이해련, 『동아일보』 1963년 3월 19일자.
4. 최기영, 『안창호의 기독교 신앙』,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이만열, 『도산 안창호와 기독교 신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참조.

십일조의 법을 지키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가족행사 때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로부터 돈을 가끔 받았습니 다. 그런데 항상 엄마는 십일조를 내야 한다며 십 분의 일을 별도로 챙겨 놓으셨습니 다. 엄마는 십일조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십일조가 뭘지 정확히 몰랐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10의 돈이 아까웠습니 다. 초등학교 1학년 12월에 온 가족이 감독님과 십일조 접견을 했습니 다. 왜 십일조 접견을 해야 하는지 몰랐으나, 그때 감독님께서는 십일조의 중요성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고, 제 십일조가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신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 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십 분의 일을 저금통에 넣거나 봉투에 넣어 둡니 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엄마가 매주 용돈을 주십니 다. 가끔은 아빠나 엄마를 도와드리고 별도의 용돈을 받기도 합니 다. 이렇게 십일조 저금통에 돈이 모아질 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 다.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 다. “유정아! 네가 이렇게 십일조를 내기 때문에 너는 용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축복이란다. 네가 십일조를 낼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구나.” 저는 엄마 말씀대로 저의 십일조를 통해서 온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 다. 저는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 다. <남유정 자매, 10세, 안양 스테이크>

암탉 프로그램의 기적

어느 안식일 아침 5학년인 아들 형준이가 갑자기 자기 친구 동영이를 교회에 데려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과연 동영이 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실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벌써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동영이 부모님이 괜찮다고 선뜻 허락을 한 것이다. 좋은 곳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고 싶다고 생각한 형준이의 순수한 마음이 보답을 받은 것 같아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 후 여러 번 동영이를 교회에 데리고 갔고 선교사님들과도 만나게 했다. 동영이 부모님과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참에 지부 회장이 암탉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모두 실천해 볼 것을 권고하셨고, 나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영이 가족을 떠올렸다.

나는 그날 집으로 와서 저녁부터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기도는 매일매일 계속됐다. 그리고 동영이 어머니인 김미연 자매를 집으로 초대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을 믿기에 더 행복할 수 있었다며

내 간증을 전했다. 김 자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나는 내친 김에 지부에서 하고 있는 영어 몰몬경 이야기로 영어 배우기 수업에 참석하자고 권유했다. 우리는 그 수업을 들으며 교회의 교리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선교사님과 많은 토론을 했다. 가사 모임에 초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미연 자매는 나를 포함한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친분을 쌓아 갔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침례를 결심하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는 암탉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했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은 채 김 자매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김미연 자매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아들인 동영이와 딸인 완희도 함께였다. 김 자매 가족이 침례 받던 날 나는 크나큰 성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암탉 프로그램이 가져 온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도구가 되길 원한다. <이은희 자매, 부산 스테이크>



사진: 왼쪽부터 이형준, 서동영, 서완희, 김미연, 이효진, 이은희

웹사이트를 통해 교회 자료 활용하기



Lds.org를 비롯한 각종 교회 관련 웹사이트에는 방대한 교회 자료들이 들어 있다. 경전 및 리아호나를 읽는 것은 물론이고 지침서를 찾아볼 수도 있고 복음에 관련된 각종 시청각 자료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웹사이트도 존재하고,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의 간증을 보고 나눌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다.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 자료도 풍부하다. 웹 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 같은 자원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고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교회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인 Lds.org를 인터넷 메인 페이지로 설정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Lds.org(교회 공식 홈페이지)

Lds.org는 모든 교회 관련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관문과 같다. 이곳에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올라온다.

경전과 교회 잡지 읽기도 가능하며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① 자료를 클릭하면 가족, 부름, 일반이라는 하위 메뉴를 볼 수 있다. 특히 부름 메뉴는 자신의 부름과 관련된 훈련 자료, 교재, 참고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② 로그인을 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클릭하면 자신의 부름과 관련된 자료 즉, 캘린더, 주소록, 공문, 교회 지침서(공문과 지침서는 자신의 부름에 따라 볼 수 있다.) 등을 볼 수 있다. ③ 가르침을 클릭하면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위성 방송 등을 볼 수 있다.

‘방문 교육 메시지’는 음성 듣기도 가능하다. 공과 준비에 필요한 각종 교재도 PDF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사진 자료와 찬송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도자 훈련 자료실’에서는 지도력의 원리와 관련된 영상물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한국어로 제공된다.

youth.lds.org

청소년들을 위한 웹사이트인 youth.lds.org(<https://www.lds.org/?lang=kor>)에서는 2013년 새로운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를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와서 나를 따르라’와 관련된 교재 PDF, 그리고 청소년 및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비디오 등 여러 학습 자료가 올라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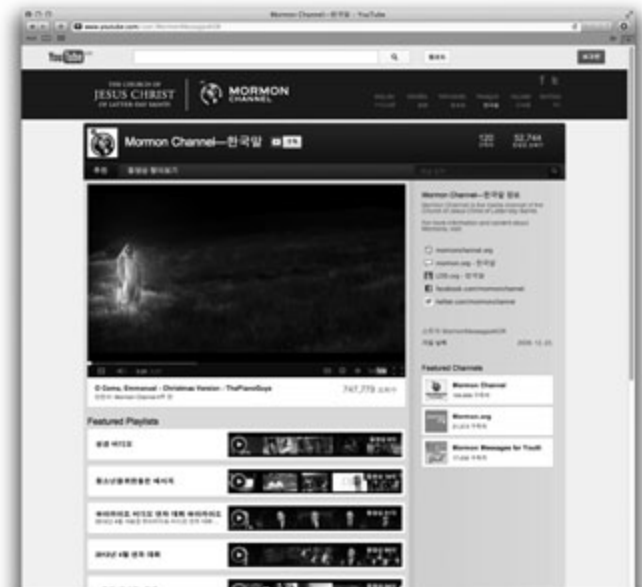
mormon.org

이곳은 교회를 처음 찾는 구도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다. 교회의 복음과 교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교회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rmon Channel

유튜브 내의 ‘Mormon Channel(www.youtube.com/user/MormonMessagesKOR)’에서는 복음과 관련된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 물론경 이야기, 신약전서 이야기, 성경 비디오 등 경전에 관련된 영상물뿐만 아니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몰몬 메시지와 청소년들을 위한 몰몬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연차 대회 또한 이곳에서 시청 가능하다. ■



정원회의 원리를 배우는 청남들

광주 스테이크 침단 와드와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의 청남들은 신권 정원회 안에서 움직인다. 토요일이면 정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안식일에는 분반을 해서 정원회 모임을 갖는다. 청남들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는 놀라움 그 이상이었다.



광주 스테이크 침단 와드

침단 와드의 청남은 모두 38명이다. 그 중 22명이 활동 회원이다. 다른 단위 조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이지만 정원회 분반을 생각할 만큼은 아니었다. 적어도 2년 전까지는 그랬다. 2년 전, 침단 와드 감독단은 지침서를 공부하던 중 아론 신권 정원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청남 고문의 역할보다도 각 정원회 회장의 인도로 청남들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감독단은 곧 정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남들을 독려했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청남들과

마찬가지로 침단 와드의 청남들도 정원회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고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청남 회장단에게 맡기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 정원회는 구성되어 있었지만 어떤 모임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감독단과 청남 회장단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바뀌 나갔다.

먼저, 청남 회장단은 그들을 돕는 고문일 뿐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청남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 주었다.

또한 회의를 하는 방법,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 등 청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모의 회장단 모임을 여러 번 하면서 청남들이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고 회의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 회의록 안에는 정원회 회장단 모임, 상호 향상회 모임, 신권 정원회 모임 등 청남들이 해야 할 모임들의 가이드 라인이 자세히 적혀 있다.

감독단과 청남 회장단은 근거리에서 청남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어려워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정원회 회장단이 새로 구성될 때마다 교육을 다시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지금 침단 와드의 청남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안식일에는 정원회별로 분반을 해서 정원회 모임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3분 말씀을 한 후 공과가 진행된다. 첫째와 둘째 토요일에는 정원회별로 상호 향상회 모임을 갖는다. 각 아론 신권 정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장단 모임을 하면서 실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청남들은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청소년이 함께 할 일을 토론하고 발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정원회에는 청남들별로 각자 담당하는 청남들이



있어 그들 중 한 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직접 안부 전화를 하고 그 결과를 정원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각 정원회의 서기들은 상호 향사회 모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예를 들어 집사 정원회 서기는 금요일 저녁에 정원회 회원들에게 상호 향사회 모임에 대해 알리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또한 안식일에 누가 성찬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 준다.

정원회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청년들의 신앙생활에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청년들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토론과 계획, 그리고 실천과 평가를 통해 지도력을 원리를 익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한 명의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교회의 신권 지도자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교사 정원회 회장인 강한빛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정원회 모임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청년들이 더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지도력을 키울 수 있고 정원회 회원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첨단 와드의 감독단과 청년 회장단은 청년들의 변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강조한다.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을 찾아 가는 느낌입니다. 고문들이 해 주기만을 바라던 청년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문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하고, 감독단과 함께 계속해서 청년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계산 와드 청년들은 안식일 모임이 끝난 후에도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신권회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각자가 맡은 와드 내의 교실을 정리정돈하기 때문이다. 물론 와드 전체 모임 후에 청소를 도맡아 하는 것도 청년들이다. 15명의 청년들이 푹푹 뭉쳐 아론 신권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은 성인 회원들에게도 모범이 된다. 청년들의 이 같은 청소 활동을 진두 지휘하는 것은 다름아닌 정원회 회장들이다. 계산 와드 청년들은 안식일 신권회에서 지난 주의 실천 사항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 정원회별로 분반을 하는데 분반 후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책자를 공부하는 것이다. 정원회 회장들은 하나님의 의무 완수 책자에서 어떤 부분을 함께 배우고



실행하고 나눌지 정하고 모임을 진행한다. 공과도 청남들 스스로가 이끌어 간다. 각 정원회별로 성찬 축복과 전달, 그리고 준비에 관계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바로 이때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원회 회장이 이끌고, 회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 청남 회장단은 각자 맡은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줄 뿐이다. 상호 향상회 모임 계획 및 진행도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하며, 청소년 회장단은 최소한의 고문 역할만 수행한다.

계산 와드 청남들이 정원회의 틀을 다진 것은 2년 반 정도부터다. 그때 당시는 청남 수가 더 적었지만 청남 회장단은 단 한 명의 회원이 있더라도 정원회를 구성했고 분반을 해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계산 와드 역시도 처음에는 진통을 겪었다. 청남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와드 청남 회장단은 그 원인을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청남 회장단은 청남이 신권 소유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청남은 와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청남들에게 알려 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회장단은 매주 간증을 나누었고 청남들을 격려했으며,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다. 청남들이 변하기 이전에 청남 회장단이 먼저 변했다. 효과는 조금씩 나타났다. 청남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노력과 실천이 와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청남 회장단은 정원회 회장들에게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맡기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와 각 정원회별 지침서 공부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감독단은 청남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감독단과 청남 회장단은 청남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계산 와드 청남들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며, 그 모임의 주체 또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계산 와드 청남들이 시험 기간에도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고, 연차 대회 토요 총회 및 신권 대회, 그리고 스테이크 신권 대회 등 차질 빠지기 쉬운 모임에도 꼬박꼬박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제사 정원회 제1보조인 박강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정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복음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때 종종 성신에 감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 안에서 표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배웠습니다.”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 중인 윤창현 형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서 모임 진행과 성찬 준비를 하고, 매주 신권회에서 정원회별 공지를 발표하면서 제가 가진 신권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원회의 원리가 청남들에게 미친 영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계산 와드 청남들은 아론 신권의 의무인 교회를 돌보고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청남 회장인 윤기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전에는 말씀이나 발표 등에 소극적이던 청남들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경전 공부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정원회별로 서로가 연락을 해 모임에 참석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청남들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부름과 역할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피 주면 반짝이는 보석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3명



김경지 자매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선교부



정혜리 자매
부산 스테이크
운천 와드
서울 선교부



박재훈 장로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불광 와드, 홍제 와드가 통합되어 녹번 와드가 됨
녹번 와드 감독: 안영태(전임); 녹번: 정영, 불광: 안영태, 홍제: 유종욱)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와 주안 와드가 통합되어 만수 와드가 됨
만수 와드 감독: 김우식(전임); 만수: 김우식, 주안: 오광철)